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7월

선교편지 제 154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도착한 첫 날부터 지금까지 약 14년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착 당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속한 선교 본부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집을 찾았는데,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곳에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다른 선교사들도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어서, 마치 외국인 마을처럼 조용하면서도 서로 의지가 되는 차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 코로나와 같은 많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이웃으로 있었던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떠나고, 이제는 이 동네에 외국인으로서 저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조용한 마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어느덧 온통 '개'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 현지인들의 '개'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각별하여 개를 키우지 않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정한 이곳에서, 집을 든든히 지켜주는 '개'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앞집은 아홉 마리, 왼쪽 집은 네 마리, 오른쪽 집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네에 있는 개들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보다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개들이 동시에 짖기 시작하면 동네 전체가 통제할 수 없는 대혼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개들이 사는 동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개들이 합세하여 서로 짖어 대기 일수입니다. 이에 더하여 개의 하울링이 시작되면, 동네 전체가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밤, 낮을 가리지 않은 개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낮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문제이지만, 동네를 배회하는 수 많은 '유기견'의 출현도 큰 골치거리입니다. 특별히 이 유기견들은 먹을 것을 찾아 각 집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 통들을 뒤지고 있는데, 새벽이 되어 집 밖에 나가보면 유기견들이 밤 사이 뒤져 놓은 쓰레기가 온 동네에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어느 집의 것인지도 모를 더러운 쓰레기가 냄새를 피우며 집 앞에 널려 있을 때마다, 코를 막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물론이고 물청소까지 해야 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제 아내가 밖에서 비에 흠뻑 젖은 어미 개 한 마리와 갓 낳은 새끼 강아지 세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미 개의 물골을 보니 동네를 배회했던 유기견이 분명했습니다. 동네 공터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새끼를 낳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미 개가 얼마나 지쳤는지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전혀 저항하지 않고 낫선 집까지 따라와 이제야 마치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마른 수건으로 젖은 어미 개와 새끼들을 닦아주었는데, 새끼



강아지 중의 한 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다른 두 마리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그 날로부터 동네를 떠 돌던 유기견 어미와 새끼 두 마리가 우리집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어미 개가 먹을 사료도 사와서 먹이고, 젖도 잘 나오라고 특별식까지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개에게 독특한 성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은 고요한 밤이 되면, 집 대문 틈을 비집고 나가 동네 쓰레기를 온통 헤집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획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잔뜩 늘어 놓고, 새벽에 태연히 집에 들어와 새끼들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러한 일을 반복하여, 청소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개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대문 틈새를 촘촘히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먹이를 풍족하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뒤지는 유기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이러한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새 식구를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지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모로서, 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현지 아이의 '입양' 절차에 대하여 수소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이 현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외국인이 현지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이곳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인 '인신 매매'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건이 매우 엄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입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지인을 입양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또한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엄청난 조건들을 도저히 만족시킬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에 세례를 받은 디고스 예일교회의 '밀라그로스' 자매는 매우 특별합니다. 현재 61세로서,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여자를 따라 집을 나갔기 때문에 거의 30년 이상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절망 가운데 있던 중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고, 그 아이들 중에서 3명을 자신의 자식들로 입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세명의 자식은 건강한 아이들이 아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지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입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 같은 형편에 있는 세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라그로스' 자매는 남의 집의 빨래를 해가며 이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 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인호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이번 5월에 세레자 교육을 받는 중에, 이와 같이 삶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밀라그로스' 자매가 주님께서 고아와 같은 자신을 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할 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아와 입양의 의미를 잘 아는 자매의 고백이었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깊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유기견과 같이 쓰레기를 뒤적이고, 이 세상에서 고아로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새 자녀로 잉태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7-18)**



2022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오래 지속된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이곳의 일상도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학교의 문이 열리고, 이제야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에 맞추어 이곳 선교 사역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학원 사역도 각 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과 복음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직 교회가 없는 익핏 지역과 콜로라도 지역의 문을 복음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굳게 닫혀진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수 6:1,2)**

디고스 지역 지도



Church



School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익핏 지역 / 콜로라도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